선사들의 차 일화와 화두

정신을 맑게 해주고 잠을 줄여주는 차는 수행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만큼 불가에는 차와 관련된 많은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불교와 차에 대해 연구해 온 혜봉 스님(이천 지족암 주지)이 선사들의 어록 속에서 차에 얽힌 일화와 화두를 찾아 정리한 <차와 선 그리고 화두>를 펴냈다. 이 책을 통해 불가에서 차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본다.

깨달음의 중요한 매개체

혜봉 스님, 차에 얽힌 일화 묶어 <차와 선 그리고 화두> 펴내

어떤 스님이 원상(圓相)을 그리고 뒤로 던진 뒤에 절을 하니, 대수법진(大隋法眞) 선사가 시자에게 말했다. "저 스님에게 차 한 잔을 달여다 주어라."

한 스님이 자복여보(資福如寶)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밥 먹은 뒤에 차 석 잔이니라(飯後三碗茶)."

운암담성(雲岩曇晟) 선사가 차를 달이고 있는데 천황도오 선사가 물었다. "누구에게 주려고 차를 달이는가?" 운암이 대답했다. "마시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네." 천황이 다시 물었다. "왜 그더러 스스로 달이라고 하지 않는가?" 운암이 다시 답했다. "마침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흔히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것을 일컬어 '선문답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선사들의 대화는 일반인들의 잣대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선문답에 사용된 비유와 예시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차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위에서 살펴본 선문답들도 '차'를 매개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 '조당집' '선문염송' 등에 차 관련 화두 전해
> '마조의 차 한그릇' 다선일여의 중요한 근거
> 끽다거의 평상심시도는 선 진수 보여줘

달마선사에서 육조혜능 스님에 이르는 중국 선(禪)의 황금시대에는 차와 관련된 일화와 화두가 많이 생성됐다. 선사들은 차를 달이거나 찻자리에서 차를 나누거나 차밭에서 찻잎을 딸 때도 법을 묻고 답했는데, 이때 차는 깨달음을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됐다.

최초의 선종 사서(史書)인 <조당집>에는 차와 관련된 화두가 37개 나오고, <경덕전등록>에는 62개, <선문염송>에는 27개의 차 관련 화두가 전한다. 이는 당시 선승들에게 차 마시기가 일상적인 일이었음을 방증해준다.

그렇다면 차는 화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끽다거' 화두로 유명한 조주 선사는 "말을 꺼낸다거나 손발을 꿈적거린다거나 하면 그 모두가 저의 그물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사께서는 이것을 떠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나는 점심을 먹고 아직 차를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주 선사는 말과 행동 언어를 떠나 '도'에 관해 말해달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일상사를 이용해 답했다. 이처럼 차는 '평상심이 곧 도(平常心是道)'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데 더없이 적합한 소재였다.

중국 선불교에서 차를 마신 선승과 선원은 마조 스님 이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마조 스님은 차를 화두 속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해 '마조의 차 한그릇'이라는 화두를 남겼고, 이는 마조선사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가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선학(禪學)적 토대가 되었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같은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기에 마조 선사는 '중국 선차의 연원'이라거나 '선조의 차 문화가 마조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칭송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널리 알려진 '끽다거' 화두는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을까? 흔히 조주선사의 대표적인 화두로 알고 있는 '끽다거'는 그보다 앞선 귀종지상 선사의 '귀종끽다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상선사가 풀을 깎고 있을 때 강사(講師) 스님이 찾아 왔다. 때마침 뱀이 지나가자 지상선사가 낫으로 끊었다. 강사 스님이 "귀종이 원래 거친 행동을 하는 사문이라는 것은 익히 들었소"라고 말하자 선사가 답했다. "좌주여! 다실에 가서 차나 마셔라(座主歸茶堂喫茶去)."

이렇게 시작된 '끽다거'는 조주선사에 의해 꽃을 피웠다. 조주선사는 "일찍이 여기 왔던 일이 있는가?"는 질문을 던진 후 온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이나 온 적이 없다고 답한 이 모두에게 '차나 마시게'라고 말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자가 "왜 와 본 사람이나 오지 않았던 사람 모두에게 차를 마시라고 하느냐"고 묻자 조주 스님은 답했다. "끽다거."

이 같은 끽다거 화두는 목주 진존숙의 '목주끽다'로 이어진 후 동산양개, 목주도명, 양기방회, 설봉의존, 법안문익 등 23명 선사들에 의해 27편의 다양한 끽다거 화두로 재탄생됐다.

끽다거 화두를 사용한 이나 그 배경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로 모아진다. 이처럼 '끽다거'는 한때의 일시적인 유행이나 방편이 아닌 선종의 역사와 더불어 면면히 전해지며 선의 진수를 보여주는 '선어(禪語)'였음을 알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 대사의 뒤를 이어 선 수행 가풍을 이어온 선사들은 매일 마시는 차를 매개로 깨달음을 전해왔다. 사진은 달마상 석각화.

초의차문화축제 28~30일 열려

우리나라 차문화 중흥조인 초의선사(1786~1866)의 차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14회 초의문화제'가 10월 28~30일 전남 해남 대흥사와 일지암 일대에서 개최된다.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공동위원장 윤형식 해남다인회장,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열반 139주기를 맞는 초의선사 추모제와 초의선사 동상 앞에서 진행되는 육법공양, 사생대회와 서예대회, 작은음악회 등이 열린다. 30일에는 대흥사 새벽숲길 산책, 여연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선담, 부도전 조사다례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061)534-5502

천태 차문화축제, 부산 삼광사서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회장 춘광)는 10월 26일 오전 10시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제3회 천태 차 문화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 문화 대회에서는 천태차문화학술대회와 천태범패연구보존회의 헌다작법 시연회, 전국 사찰 다도시연 및 들차회가 펼쳐진다.

학술대회에서는 원행 스님(광제사 주지)의 '고려시대 사원 행다법', 정인오 교수(한서대)의 '차의 종류와 관능검사에 대하여' 등이 발표된다. (043)426-7100

조선시대 ㉒

김홍도, 계회도·품다도 등 많은 다화 남겨
다산의 다신계절목, 차 모임 자세히 실어

천주교의 박해가 심해져서 정국(政局)이 소용돌이 치는 속에서도 단원 김홍도는 많은 명작을 남겼다. 현재 전하는 다화(茶畵) 중 '계회도'나 '품다도' 등은 차문화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한편 숙선옹주와 홍현주의 가례로 홍씨 일가의 차생활이 알려졌다. 무엇보다 다산의 다신계절목은 차를 통한 모임의 운영이나 조직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 속에는 다산의 차 정신과 사회의식이 들어 있다. 그리고 초의와 추사가 만난 것도 우리 차문화의 한 장을 빛나게 한다.

중국은 차의 외교적 문제가 부각되고 다상(茶商)들의 노력이 차의 유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차에 관한 세부적인 책들이 나왔다.

① 이상적(1804~1865): 추사의 문인으로 호는 우선(藕船)이라 한 역관이다. 중국을 자주 다녀와 '세한도'를 전하도록 했고 백산차에 관한 다시를 지었다.

② 1810년을 전후한 기향에서 성균관유생과 승무원 관원들에게 보인 시험 답안지를 모은 책이다. 그 중에 진사 남면중과 홍길주의 답안이 차에 관한 내용이다.

③ 김홍도(1760~?): 강렬한 개성으로 자신의 경지를 개척한다. 많은 다화를 남겨 차문화 발전을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④ 허유(1809~1892): 서화가로 호는 소치(小癡). 초의와 추사에게서 그림과 글씨를 익혀묵죽과 모란에 능했고 운림산방에서 차를 즐겼다.

⑤ 다산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신계를 만든 후 그 규칙과 자산 운영에 관해 정한 절목이다.

⑥ 범해각안(1820~1896): 대둔사 13대 강사를 역임했으며 선과 차를 융화시켜 추앙을 받는다. 다시 수십 편이 전한다.

⑦ 임칙서(1785~1850): 아편전쟁 중에 많은 외교활동과 군사활동으로 외세방어에 노력했다. 그 중 차에 관한 대외적인 일에 대처했다.

⑧ 정진이 찬한 책으로 새차를 따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⑨ 요형(1785~1853): 청대 사학자로 호남안찰사를 지낸 차인이다. 그의 문집 중 <감포궤다(堪布饋茶)>에는 차의 거래와 가격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⑩ 유월(1821~1906): 청대 경학가로 <춘재당전집> 500여권 속에 차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다. '과다(誇茶)' '다향실총초(茶香室叢鈔)' 등이 있다.

반영인: 청대 차학자로 다낭(茶囊) 수정다우(水晶茶盂) 등의 많은 저서를 남겼다.

⑪ 강유과(1792~1854): 아들 문찬(1821~1862)과 손자 요화까지 삼대에 걸쳐 근 100여년간 이어져 온 유명한 다상(茶商)이다.

⑫ 덕천제소(1800~1860): 수호번주(水戶藩主)로 다설(茶說)을 쓸 때 유교경전의 이론을 끌어와 설명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800 청조 조문 칙사 임금께 약차 처방 1801 황사영 체포 이승훈 이가환 처형 1804 이상적(李尙迪)의 출생 ① 숙선옹주 가례 1805 박지원의 죽음 @ <승상편년(陞庠編年)> ② @ 김홍도(金弘道)의 활동 ③ 1809 허유(許維)의 출생 ④ 1812 혜장의 입적 1815 초의, 추사를 만나다 1817 <경세유표> 1818 다산의 해배(解配) @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 ⑤ 1820 범해각안(梵海覺岸)의 출생 ⑥	청대	@ 임칙서(林則徐)의 활동 ⑦ 1808 <사명지미(四明志微)> ⑧ @ 요형(姚瑩)의 활동 ⑨ 1812 좌종당(左宗堂)의 출생 @ 유월(兪樾), 반영인(潘永因)의 활동 ⑩ @ 강유과(江有科) 일가(一家)의 활동 ⑪	강호시대	1800 덕천제소(德川齊昭)의 출생 ⑫